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김주환*

<차 례>

- I. 서론
- II. 교과서 선정에 대한 선행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제언
- VI. 결론

I. 서론

중등 국어 교과서는 2007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검정제로 전환되었다. 국어과에서는 문학 교과서 등 고등학교 선택 과목들이 이미 검정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정제가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검정제는 일부 선택 과목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국어 교과 차원에서 검정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중등에 한정되긴 하였지만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됨으로써 국어 교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정 시대를 맞게 되었다.

중등 국어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된 이후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는 이미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와 고

* 도봉고 교사. 이화여대겸임교수

등학교 선택 과목 교과서가 학교 단위의 채택을 마무리한 후 사용을 기다리고 있다. 검정 교과서의 개발, 검정, 채택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어과 검정 교과서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어과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된 배경은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점, 교사나 학생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검정 기준이 엄격해서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정제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격려하는 것이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검정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더 획일적인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 제도는 좋은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국어 교과서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답시고 지나치게 세밀하고 엄격한 규정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 지금의 국어 교과서 제도(이성영, 2009 : 94)”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교과서의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23종의 교과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교과서를 선택해야 했다. 교과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 스스로 교과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2주 정도 안에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과서 종수는 많은데 선정에 필요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좋은 교과서를 채택하기보다는 무난한 교과서를 선택하는 ‘안전지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정혜승, 2010).

검정 교과서는 경쟁을 통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검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과서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교과서가 채택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좋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은 대부분 국어과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들이 좋은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을 만

들어주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이 협의에 의해서만 교과서가 채택될 경우에는 좋은 교과서가 채택되기 보다는 무난한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과서의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 교과서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교과서 선정에 대한 선행 연구

국어 교과서는 오랫동안 국정제로 운영되어 왔다. 중등학교에서 교과서 검정제는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도입되었지만 국민공통기본교과로서 국어 교과가 검정제로 전환된 것은 2007교육과정에서 처음이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으나(박영목 : 2006, 송현정 : 2005) 학교 단위 교과서 선정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국어 교과에서도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검정제로 전환되어 교과서 선정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위의 선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7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나온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다.

유학영(2010)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교과용도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정 도서는 검정 도서로, 국·검정도서는 인정도서로 전환하여 교과용도서 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다양성 있게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적 평면적인 우리의 검정 방식을 보다 다각적 심층적 검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일정 안에서도 공청회, 전시회 등을 거치면서 수업 패널인 교사와 내용 검토 패널인 연구자가 검정과 채택에 참

여하고 있다. 셋째, 현행의 교과용도서 채택 결정 방식은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 과다로 채택 결정 업무 부담이 크며, 실제로 교사들은 설문 조사에서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 환경이 좋지 않고 심도 있는 평가가 어려우며, 검정도서들이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채택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용 도서 전문 발행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교과서 제도를 분석하고 초·중등 교사 379명과 발행 종사자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특정한 교과가 아니라 교과서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성영(2009)은 국어 교과서 정책을 진단하고 국어 교과서의 편찬, 평가, 사용 전반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는 국어 교과서의 ‘편찬’과 관련해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발행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출판사별 출원 교과 및 종수를 제한하고, 교과서의 이름 또한 특성을 살려서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검정 기준에 제재 및 언어활동의 양호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국어과의 특성을 살려야 하며, 수준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기준 또한 추가되되 국어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 혹은 검정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교사의 교육 자유권 및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현(2010)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개발, 검정, 채택 과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들에서 자율성이 자발성으로 포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검정체제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

제, 교과서 검정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 채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교과서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서 검정 및 교과서 개발 주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성영(2009)과 최지현(2010)은 국어과 검정 교과서의 개발, 검정, 선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반면에 정혜승(2010)은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국어과 교사들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 나타난 경향을 단순화하여 ‘안전 지향적’이라고 분석하였다. 국어과 교사들은 교과서 채택이 초래할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안전 지향적’ 경향은 교과서 선택에서 ‘무난한 교과서 채택 전략’과 ‘강한 주장 회피 전략’으로 나타난다. 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식해서 튀는 교과서 대신 평범한 교과서나 7차와 비슷한 ‘무난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이 선택한 교과서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강한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전략을 구사한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교사 문화와 공정한 교과서 채택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교과서 검토에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황, 평가 대상이 되는 교과서의 변별성 부재 등도 교사들이 강한 주장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주형주(2010)도 2010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국어』, 『생활국어』교과서를 선정한 중학교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검정 교과서의 선정 과정과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국어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 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하였으나 각 학교별로 선정 방법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체로 23종의 교과서를 국어 교사 전체가 꼼꼼히 살펴본 후 각각 3종을 선정하여 장시간의 교과협의를 통해 최종 3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 기준은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 일반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 나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교과 일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교과 일반

기준을 사용하여 선정할 때 교사들은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 아닌 교사들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3종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교과서 선정에서 국어과 교사들은 엄정한 기준을 갖고 교과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안전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교과서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교사들이 좋은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부족이나 안전지향적인 태도에서만 찾는 것은 교과서 선정 과정의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묻는 것이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는 교사 요인뿐만 아니라 교과서 선정 정책과 교과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에서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떤 인식과 요구를 갖고 있는지, 학교 단위의 교과서 선정 기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 교과서 선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I. 연구 방법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은 대부분 교과협의회에서 교사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과서 선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정 교과

서 제도와 교과서 선정 제도 전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채택에 관여하는 교사들이 검정 교과서와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149명이며 중학교 교사가 52.3%, 고등학교 교사가 47.7%였다. 연령대별로는 5년차 이내의 젊은 교사가 70.5%로 많았고 5년 이상의 교사가 28.9%를 차지하였다. 젊은 교사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조사 대상자의 많은 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1급 정 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교과서 선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52.3%이고 집필이나 검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4.7%, 교과서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42.3%였다. 그런데 조사 시점에서는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서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에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은 검정 교과서에 대한 반응과 평가, 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 교과서 선정 기준 등 세 개의 범주에 따라 10개의 선택형 문항과 3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검정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반응과 교과서 선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문항을 제시했다. 반면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과서 선정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고 교사들이 응답한 결과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범주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표 1〉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설문지

범주	문항
검정 교과서에 대한 반응과 평가	1. 선생님께서는 어떤 교과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께서는 어떤 교과서를 선호하십니까? 3. 선생님께서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선생님께서는 현재 채택하신 검정 교과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범주	문항
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	5. 선생님께서는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선생님께서는 검정 교과서 선정 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7. 선생님께서는 교과서를 선정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을 활용하였습니까? 13.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선정 기준	8. 선생님께서는 시, 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선생님께서는 단위 학교 교과서 선정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선생님께서는 교과서 선정 시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교과서 선정 기준과 개선 방안 (개방형 질문)	11. 다음은 한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과서 선정 기준 예시안입니다. 이 범주 구분이 타당한지 말씀해주시고,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선생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정 기준을 한 두 가지씩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3.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V. 연구 결과

(1)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과서 제도

“선생님께서는 어떤 교과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표 2>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2〉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과서 제도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국정제	52	35.9%
② 검정제	69	47.6%
③ 인정제	16	11.0%
④ 자유발행제	4	2.8%
⑤ 기타	4	2.8%
합계	149	100.0%

바람직한 교과서 제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검정제 47.6%, 국정제 35.9%, 인정제 11.0%로 나타났다. 검정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만 국정제를 선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유 응답에 나타난 의견을 통해서 보면 검정제에 따른 업무 부담의 증가와 검정제라고 해서 특별히 다양한 교과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등 검정제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국정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에서는 국정제나 검정제보다는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절대 다수가 국정제나 검정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보면 교과서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과서

“선생님께서 어떤 교과서를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을 받았다. <표 3>은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후 빈도 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3〉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과서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다양한 학생 활동이 많은 교과서	134	30.3%
② 새로운 교수법이 반영된 교과서	62	14.0%
③ 읽기 자료가 풍부한 교과서	110	24.9%
④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	113	25.6%
⑤ 디자인이 세련된 교과서	17	3.8%
⑥ 기타	6	1.4%
합계	442	100.0%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과서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양한 학생 활동이 많은 교과서’ 30.3%,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 25.6%, ‘읽기 자료가 풍부한 교과서’ 24.9%, ‘새로운 교수법이 반영된 교과서’ 14.0%로 나타났다. 다양한 학생 활동이 많은 교과서를 선호하는 것은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나 ‘읽기 자료가 풍부한 교과서’를 많은 교사들이 선호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과서가 다양한 학생 활동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식도 제공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3)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선생님께서서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을 받았다. <표 4>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교과서 집필을 현장 교사가 주도해야 한다.	109	25.8%
② 교육내용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94	22.3%
③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검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74	17.5%
④ 교과서 채택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58	13.7%
⑤ 교과서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83	19.7%
⑥ 기타	4	0.9%
합계	422	100.0%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교과서 집필을 현장 교사가 주도해야 한다.’ 25.8%, ‘교육내용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22.3%, ‘교과서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19.7%,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검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17.5%, ‘교과서 채택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13.7%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교사들은 교과서 개발을 현장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검정 교과서에서는 국정제와 달리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검정 교과서가 아직도 ‘현장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영역별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주환, 2010). 교과서 검정이나 선정과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검정 교과서의 만족도

“선생님께서도 현재 채택하신 검정 교과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영역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검정 교과서의 만족도

평가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① 학습 목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1.4	14.5	49.0	33.1	2.1
② 제재가 학습 목표의 달성에 적합한가?	2.7	14.4	45.2	32.9	4.8
③ 제재가 학생들의 수준이나 관심에 부합하는가?	3.4	19.2	46.6	28.1	2.7
④ 학습 활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7	20.5	48.6	26.7	1.4
⑤ 평가 방법이 영역별 특성에 맞게 제시되어 있는가?	3.4	24.7	46.6	24.0	1.4
⑥ 디자인이 내용에 적합하고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2.7	8.2	35.6	42.5	11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검정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디자인이 내용에 적합하고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평가 방법이 영역별 특성에 맞게 제시되어 있는가?’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제재가 학생들의 수준이나 관심에 부합하는가?’, ‘학습 활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학습 목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제재가 학습 목표의 달성에 적합한가?’라는 항목에서는 긍정 의견이 약간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면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교사들의 평가는 디자인 측면을 제외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정 교과서는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교사들의 자유 응답을 보면 검정 교과서는 ‘지나치게 활동을 강조한 결과 지식의 체계적인 습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서 지식과 활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5)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선생님께서서는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표 6>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6〉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출판사	20	13.9%
② 저자	11	7.6%
③ 교과서	47	32.6%
④ 교사	48	33.3%
⑤ 학생	7	4.9%
⑥ 학교 환경	8	5.6%
⑦ 기타	3	2.1%
합계	144	100.0%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는 ‘교사’ 33.3%, ‘교과서’ 32.6%, ‘출판사’ 13.9%, ‘저자’ 7.6%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교과서 선정이 출판사나 저자, 학교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 교사와 교과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과정이 대체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사 요인이 13.9%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출판사의 홍보나 영업 전략이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 요인과 교사 요인 중에서 교사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과서 채택이 교사의 의견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 채택이 교과서 선정 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채택되기 보다는 교사들의 선호도나 이해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는 좋은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교과서 채택에서 교사들의 이해나 선호

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좋은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다.

(6) 검정 교과서 선정 시의 어려움

“선생님께서서는 검정 교과서 선정 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을 받았다. <표 7>은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검정 교과서 선정 시의 어려움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교과서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134	32.1%
② 교과협의회가 충실히 운영되지 않았다.	63	15.1%
③ 교과서 종수가 너무 많았다.	123	29.5%
④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35	8.4%
⑤ 교과서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60	14.4%
⑥ 기타	2	0.5%
합계	417	100.0%

검정 교과서 선정 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32.1%, ‘교과서 종수가 너무 많았다.’ 29.5%, ‘교과협의회가 충실히 운영되지 않았다.’ 15.1%, ‘교과서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14.4%,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8.4%였다. 이것으로 보아 교과서 종수가 너무 많은데 비해 검토할 시간은 매우 적은 것이 교과서 선정 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협의회가 충실히 운영되지 않았든지, 교과서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 선정 과정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8.4%에 그치고 있다. 선행 연구를 보면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

다고 했으나 교사들 스스로는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교과서 선정 시 활용한 선정 기준

“선생님께서서는 교과서를 선정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을 활용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표 8>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8> 교과서 선정 시 활용한 선정 기준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교과서 검정에서 사용한 기준	10	6.9%
② 시, 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	32	22.1%
③ 학교에서 자체로 만든 기준	50	34.5%
④ 특별한 기준 없이 협의를 통해서 선정	50	34.5%
⑤ 기타	3	2.1%
합계	145	100.0%

교과서 선정 시 활용한 선정 기준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학교에서 자체로 만든 기준’ 34.5%, ‘특별한 기준 없이 협의를 통해서 선정’ 34.5%,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 22.1%, ‘교과서 검정에서 사용한 기준’ 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면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학교에서 자체로 기준을 만들거나 특별한 기준 없이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자체로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합의된 기준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기준 없이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질총과 타협을 통해서 무난한 교과서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검정 기준을 활용할 경우에도 기준의 추상성과 모호성 때문에 교과서 선정은 임의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8)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의 적절성

“선생님께서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응답을 받았다. <표 9>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표 9〉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의 적절성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교과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13	5.2%
②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8	23.1%
③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4	25.5%
④ 불필요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	41	16.3%
⑤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적용하기 어렵다.	72	28.7%
⑥ 기타	3	1.2%
합계	251	100.0%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적용하기 어렵다.’ 28.7%,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5.5%,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3.1%, ‘불필요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 16.3%, ‘교과별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5.2%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이 실제 교과서 선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은 대체로 검정에서 사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보내거나 약간 수정 보완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검정 기준을 학교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단위 학교 교과서 선정 시 중점을 두는 점

“선생님께서서는 단위 학교 교과서 선정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표 10>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0> 단위 학교 교과서 선정 시 중점을 두는 점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교육과정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	33	23.6%
② 학문적으로 타당한 내용인가?	2	1.4%
③ 출판사와 저자가 신뢰할 만한가?	3	2.1%
④ 학생들의 수준, 관심에 부합하는가?	100	71.4%
⑤ 기타	2	1.4%
합계	140	100.0%

단위 학교 교과서 선정 시 중점을 두는 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학생들의 수준, 관심에 부합하는가?’ 71.4%, ‘교육과정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 2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학교 단위의 교과서 선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부합 여부나 학문적 타당성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가라는 기준이 더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선정 기준도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나, 학문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반영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나 좀 더 어렵고 수준이 높은 교과서, 전문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과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교과서 등과 같은 차별화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10) 교과서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선생님께서서는 교과서 선정 시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을 받았다. <표 11>은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1〉 교과서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설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① 교육 목표와 내용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135	31.5%
② 읽기 자료가 적절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가?	139	32.4%
③ 교수 학습 방법이 창의적인가?	85	19.8%
④ 다양한 평가 방법이 구현되어 있는가?	34	7.9%
⑤ 디자인이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가?	34	7.9%
⑥ 기타	2	0.5%
합계	429	100.0%

교과서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교육 목표와 내용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31.5%, ‘읽기 자료가 적절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가?’ 32.4%, ‘교수·학습 방법이 창의적인가?’ 19.8%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교육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통합성과 읽기 자료의 적절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의 창의성이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학습 활동보다는 교육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통합성과 읽기 자료의 적절성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선정 기준의 타당성

“다음은 한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과서 선정 기준 예시안입니다. 이 범주 구분이 타당한지 말씀해주시고,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방형 질문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2〉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선정 기준

I. 교육 과정	1. 교육과정 부합성 2. 학습 분량의 적절성
II. 학습내용선정	3. 내용 수준의 적절성 4. 정확성 5. 중립성 6. 학습동기유발
III. 학습내용조직	7. 효과성 8. 단원·학년간 연계 및 계열성 9. 시각 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 10.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
IV. 교수학습활동	11.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12. 교수·학습 활동의 유용성 13. 학습 참고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V. 학습평가	14. 다양한 평가 활동 15. 종합적 사고력 평가
VI. 표현표기 및 외형 체제	16.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17.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선정 기준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타당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실제 교과서 선정에 적용할 때 모호하고, 주관적이게 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내용 선정의 중립성’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내용 선정의 중립성’을 강조할 경우 언어 사용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의 경우에도 교과서에서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표시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될 경우 교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추가할 항목으로는 ‘학습목표와 내용의 유기성이나 일관성’,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 항목을 들었다. 또한 교육내용 선정 시에 ‘시대 변화의 반영’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 선정 기준의 무용성을 주장한 의견도 있었다. 다음은 교과서 선정 기준이 학교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위와 같은 틀이 정말 유용한가요?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항목별로 채점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인상 평가해서 선정해놓고 그 후에 역으로 평가틀에 맞게 점수를 꿰맞춰 놓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무시되고 역량 있는(?) 교사 혹은 관리자 힘이 발휘되어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전 교과서 선정 담당 6년차입니다.)”

(12) 교사들이 제시한 교과서 선정 기준

“선생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정 기준을 한 두 가지씩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유 응답 질문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3〉 교사들이 제시한 교과서 선정 기준

영역	심사 항목	비중
교육목표의 구현	-교육과정의 부합 -교육목표와 학습 내용의 관련성 -교육목표와 학습 활동의 관련성	10
교육내용 선정, 조직	-내용 수준의 적정성 -학습 내용의 체계성, 계열성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 유발	20
제재 선정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제재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 -사회 현실을 반영한 자료 -흥미로우면서도 보편적인 이치를 담은 제재	30
교수학습방법	-학습 활동의 유용성 :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활동 -학습 활동의 실제성 : 실제적인 언어 활동 -학습 활동의 적절성 : 교육 내용과 목표에 부합	30
평가	-학습 내용과의 연계성 -평가 방법의 창의성 -수행평가의 절차나 자료 제시	10

교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복된 횟수를 기초로 수치화해 보면 제재 선정 30%, 교수학습 방법 30%, 교육내용 선정 조직 20%, 평가나 목표와 관련된 항목이 각각 10%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서 보면 교과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재 선정과 교수학습 방법, 교육 내용 선정 조직과 같은 항목이다. 이성영(2009)도 국어과 교과서의 평가 항목으로 제재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면 교과서 검정이든 선정이든 간에 국어과 교과서 평가의 중요한 영역은 제재 선정과 학습 활동, 교육 내용 선정 조직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제시한 선정 기준을 검정 기준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검정 기준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았던 ‘교육과정의 부합’ 영역은 선정 기준에서는 교육 목표의 구현과 관련된 세부 항목의 하나 정도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둘째, 검정에서 중요한 심사 영역이었던 ‘표기 표현 및 외형체제’가 사라졌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교과서 선정 기준에서는 제재 선정의 비중이 커졌다. 제재 선정의 적절성이나 제재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서 보면 검정 기준에서는 교육과정의 반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반면에 선정 기준에서는 제재와 학습 활동의 적절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내용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은 매우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선정에 대하여>

—경험담인데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서점이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

- 었다. 학교에 자주 찾아 와서 자신의 서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해주면 자료를 많이 주겠다는 등 피곤하게 했다.
- 지역 단위별로 선정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출판사의 영업력에 따라 선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합니다.
 - 로비척결 : 교과서 전시회를 통한 공개 선택, 교과서 평가에 대한 연구와 교과서 설명회 필요.
 - 교과서를 보고 살펴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또는 출판사별로 특색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공청회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 교과협의회에서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준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정과 협의에 따른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충분한 검토 기간과 검토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협의시간을 분명히 마련하여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확보. 교과서 분석 기준을 분명히 정한 후 모든 교과서를 그것에 맞게 선택하도록. 관리자 등의 영향력 배제.
 - 국정제가 문제는 많지만 너무 많은 종류의 교과서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다. 중을 줄이고 내용을 충실히 해서 선정 시 많은 종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 국정제로 돌아와 주세요. 요걸 엄격히 하면 중을 텐데. 검정이 뭐 참신하고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교과서 질은 떨어지는 것만 같고.
 - 우선 교과서 선정 기준을 교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금 예시로 제공하는 기준안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 다양한 교과서 내용들을 평가하고 선정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또한 교과서 선정 협의회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었으면 한다.
 - 학생의 수준, 학습 성향에 맞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 선정 과정에서 시간상 압박이 있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 많은 종류의 교과서가 실제 수업에 적용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수준별 단위학교의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 분량의 교과서가 개발되어 실정에 맞게 쓸 수 있었으면 하고 선정과정이 간소화되어 부담 없이 교재 선택이 가능했으면 한다.

〈검정 교과서에 대하여〉

-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학생들의 특성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수업 활동이 가능한가?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무리하지 않고 정상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 검정 기준, 검정위원 선발에 있어서 나이대별, 경력별, 성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함. 고리타분한 교과서들이 검정에 통과하는 것이 문제임. 그리고 가르치면서 문제가 있는 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이 잘못임.
- 제발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은 청소년 수준의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소설과 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나도 수업하기 힘들다.
- 이번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살펴본 교과서들은 지나치게 학생활동중심적이었다. 기존의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는 다양한 활동수업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번 선정과정에서 살펴 본 교과서는 오히려 수업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지식전달 부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구성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
- 지나치게 학습자의 흥미를 추구하다보니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거나 매체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취지는 좋지만 교수,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작품을 신지는 않았으면 한다.
- 많은 검정 교과서들이 활동 위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활동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학습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 검정 교과서로 가더라도 학년별로 1, 2작품씩은 공통된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
- 교과서 분량이 너무 많다. 수업시수에 맞게 적정분량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자유 응답 질문에서도 본 설문 내용과 유사한 의견들이 많았다. 교과서 종수가 많고 선정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출판사의 영업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형 질문에서도 저

자나 출판사 요인이 20%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보면 출판사의 영업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연수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교과서 채택 비리 척결에 대한 연수가 고작이다. 검정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과서 평가회가 다양하게 열려서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 공청회나 교과서 전시회가 지역별로 열린다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쉽게 참여하여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지 않는 제재의 문제점, 지나치게 활동중심적이라는 지적 등이 많았다. 본 설문에서도 교사들은 다양한 학생 활동과 함께 읽기 자료가 풍부하거나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를 선호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흥미 있는 읽기 자료를 선정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과서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대체로 검정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검정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여전히 국정제를 선호하는 의견도 많았다. 검정제로 전환되면서 비슷비슷한 교과서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 출판사간의 경쟁이 심하고, 교과서 선정 업무가 늘어난 점 등으로 인해 검정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정제의 경우에는 채택에 대한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전학을 할 때 교과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이 있다. 또한 국정제의 경우 검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필진들이 오히려 소신껏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검정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검정제를 도입한 까닭은 다양화를 통한 교과서 질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들이 확인한 교과서는 다양화와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점에서의 획일화였다.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은 검정 통과를 목적으로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것은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이 자율성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결과로 검정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과서 검정이나 선정 등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의 참여와 교육과정의 개선 등이 중요하다. 국어 교사들은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현장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집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검정제에서는 국정제에서보다 현장 교사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제7차 교육과정 시기 고등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집필진 17명 중에서 현장 교사는 4명에 불과하였으나 검정 교과서에서는 교사의 참여 비율이 40%에 이른다. 그러나 고등 국어 검정 교과서를 보면 16종 모두 대표 집필자는 교수였으며 교수와 교사의 비율이 60 : 40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논의의 주도권은 대체로 교수들이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나아가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잘 살린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같은 단원 안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까닭은 교육과정의 내용이 영역 간은 물론이고 영역 내에서조차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통합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성이나 계열성을 확보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생 활동이 많은 교과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그에 못지않게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나 ‘읽기 자료가 풍부한 교과서’ 또한 선호하고 있다. 활동 중심의 교과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특정한 형태의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제약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교과서 검정에는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교과서 선정에는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있다. 교과서 선정을 위해서는 교과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과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2주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과서의 종수는 16종, 23종으로 교사들이 검토해야 할 책 수는 모두 32권에서 92책이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교과서를 꼼꼼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과서를 대충 훑어보고 나서 협의를 통해 선정할 수밖에 없다. 협의를 통해서 교과서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별 무리가 없는 선에서 차선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교과서에 대한 평가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교과서에 대한 평가 정보는 교사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별 출판사의 홍보물 정도가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책 정보의 전부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판사의 영업 행위는 철저히 막되, 교과서에 대한 평가 정보는 확대하여 좋은 교과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교과서 평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과서 선정 기준을 국어 교과서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교과서 선정 기준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학교 현장에 제시되는 교과서 선정 기준은 검

정 기준을 그대로 제공하거나 약간 수정한 것들이다. 교과서 검정과 학교에서의 선정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교과서 검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반영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교과서 선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 관심의 부합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채택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첫째, 제재의 선정이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에서 읽기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사들은 제일 먼저 제재의 적절성을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학습 활동은 수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재를 바꾸어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제재 선정의 적절성이다. 둘째, 학습 활동이 실제적인 언어활동을 중심으로 흥미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습 활동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으면 그 활동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따라서 교사의 수고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활동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는 또다시 다른 자료와 활동을 구안해야 한다. 셋째,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선정 조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폭과 깊이가 적절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정 교과서의 학습 내용은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다. 추상화된 교육 내용을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검정 기준에서는 교육과정의 준수나 표기·표현과 같은 심사 영역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학교 단위의 교과서 선정에서는 제재 선정과 학습 활동이 중요한 심사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과서 선정 과정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평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없으면 교과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협의에 맡기게 되면 ‘좋은 교과서’가 선택되기 보다는 문제가 없는 ‘무난한 교과서’가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의의 과정은 결국 절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교과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곧 좋은 교과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VI. 결론

이 연구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국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 교과서 선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첫째, 국어 교사들은 검정제를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정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리 높지 않고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불만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검정제가 가장 적합한 교과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서 선정 기간을 늘리고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서 종수가 너무 많은데 비해 교과서 선정 기간은 턱없이 모라자서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 채택을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선정 기간을 확대하고 선정해야 할 교과서의 종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교과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서 제시해야 한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학생들의 수준 적합성이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과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공해서 협의에 의한 선정이 아니라 좋은 교과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교과서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서 선정 기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상대적으로

5년 이하의 젊은 교사들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 근무 경력에 따라 교사들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책 연구의 차원에서 검정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교과서 검정과 선정 제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1. 10. 23.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재춘(2009),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O 2009-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영목(2006), “검정 도서로서의 국어 교과서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7집, 국어교육학회, 5-24쪽.
- 박정진(2005),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101-125쪽.
- 손영애(2008), “새로운 국어 교과서 구성 방안”,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51-281쪽.
- 송현정(2005), “국어 교과서 검정제에 관한 실태 분석과 도입의 방향 탐색”, 『이중언어학』 제28호, 이중언어학회, 161-183쪽.
- 유학영(2009),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윤현진(2010),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10-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성영(2009), “국어 교과서 정책”, 『국어교육학연구』 제36집, 국어교육학회, 71-98쪽.
- 정은아(2008), “국어교재관의 확장을 위하여 살펴본 미국의 자국어 교재 운영 사례—버지니아주의 8학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111-131쪽.
- 정혜승(2004), “국어 교과서 평가 방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국어교육학회, 433-476쪽.
- 정혜승(20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채택 방식과 맥락”, 『독서연구』 제24호, 한국독서학회, 445-478쪽.
- 주형주(2011), “국어 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진재관(2007),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I)』, 연구보고 RRC 2007-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진재관(2008),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II)』, 연구보고 RRC 2008-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지현(2010), “2007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검정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새국어교육』 제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91-317쪽.

<초록>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김주환

이 연구는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교과서 선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사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어 교사들은 검정제를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정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리 높지 않고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불만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검정제가 가장 적합한 교과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서 선정 기간을 늘리고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서 종수가 너무 많은데 비해 교과서 선정 기간은 턱없이 모라자서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 채택을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선정 기간을 확대하고 선정해야 할 교과서의 종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교과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서 제시해야 한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 적합성이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과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공해서 협의에 의한 선정이 아니라 좋은 교과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핵심어】 교과서 검정제, 교과서 선정, 교과서 선정 기준

<Abstract>

A Study of Korean Teachers' Perceptions on Textbook Adoption

Kim, Joo-hwan

This study aims to find an improvement of textbook adoption through teachers' perceptions on textbook adoption. The focuses of arguments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Korean teachers do not think that a textbook authorization is good way. Their satisfaction degree about that policy and the process of textbook adoption are not high. Nevertheless, they think that the textbook authorization is an appropriate way for the pres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xtbook authorization by revising whole one.

Second, it suggests that we should expand a period of textbook adoption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textbook. Most teachers consider that textbook adoption is hard work because the number of textbook is too much and adoption period is too short. Therefore, we should expand the period of adoption, cut down the number,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textbook through public hearing.

Third,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give shape to textbook adoption criteria. The criteria that teachers emphasis is how suitable for students' level. It is needed to provide criteria that can consider condition of each school. By doing so, we should adopt textbook by clear criteria for good textbook.

【Key words】 textbook authorization, textbook adoption, textbook adoption criteria